

# 민간인통제선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 마을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정해용<sup>1\*</sup>

## A Study on Spatial Distribution of Villages in Border Region according to Change in Civilian Control Line\*

Haeyong JEONG<sup>1\*</sup>

### 요 약

본 연구는 기존 민북마을의 사회공간적 분포 및 변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민통선 변화에 따른 민북마을의 시공간적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전협정문 제2권 지도와 구글어스, 수치지적도, 행정구역도 등을 공간 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연보와 국방부 및 철원군 고시 자료,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지적도 속성정보 등을 정리하여 속성자료로 구축하여 민간인통제선의 조정에 따른 민북마을의 변화를 시계열로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민간인통제선이 그려진 1976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2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철원의 민간인통제구역 총면적은 105.8km<sup>2</sup>가 감소하였고, 민북마을 총 14개 중 9개 마을이 해체되고 6개 마을만 존재하게 되었다. 미입주 마을은 기존 조사되거나 통계상의 마을 보다 10개 적은 14개 마을로 분석되었다. 민통선 북상은 민북마을의 고유 특성을 사라지게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차원에서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북지역과 민북마을의 기초가 되는 시공간 분석을 실시한 데에 의의를 가지며 후속 분석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민간인통제선, 민북마을, 지역, 공간분석, 철원군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nduct the study from a macro perspective more specifically through the temporal and spatial analysis of Minbuk villages according to a change in a

2021년 05월 26일 접수 Received on May 26, 2021 / 2021년 06월 15일 수정 Revised on June 15, 2021 / 2021년 06월 16일 심사완료 Accepted on June 16, 2021

\* 본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8S1A5B5A07070999).  
1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wjdgofyd@kangwon.ac.kr

Civilian Control Line, such as a social and spatial distribution and a change of the existing Minbuk village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the spatial analysis for the change in the Minbuk villages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in time series by using a map of the Armistice Agreement Vol. 2, Google Earth, a digital cadastral map, an administrative district map, and the like are used as spatial data, and summarizing and constructing, as attribute data, a statistical yearbook, Ministry of Defense and Cheorwon-Gun notification data, a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and cadastral map attribute informati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ct, the analysis was performed on a 20-year basis based on the 1976 statistical yearbook of which the Civilian Control Line was drawn. As a result, the total area of the Civilian Control Zone in Cheorwon from 1975 to 2015 decreased by 105.8 km<sup>2</sup>, and 9 of 14 Minbuk villages were released and only 6 villages existed. The unoccupied villages were analyzed as 14 villages, 10 fewer than the existing surveyed or statistical villages. The movemen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to the north may disappea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inbuk villages but should be done carefully as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current residents, and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villag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onducting the temporal and spatial analysis, which is the basis of the Minbuk regions and the Minbuk villages, and may be used as basic data necessary for subsequent analysis study.

**KEYWORDS** : *Civilian Control Line, Minbuk villages, Region, Spatial Analysis, Cheorwon-Gun*

## 서론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반도의 분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경계 및 경계에 따른 지역이 형성되었다. 정전협정 1권 전문 및 2권 지도에서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한강하구중립지역 등 경계선 및 경계지역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및 도식되어 있다. 이러한 경계선 및 경계지역에 의해 민간인통제선(民間人統制線, Civilian Control Line, 이하 민통선, CCL), 민통선 북방마을(이하 민북마을), 접경지역 등 새롭게 명명된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중 민통선은 「군사시설보호법(1981.12.31.)」 1차 개정시 명시된 법률용어이다. 1954년 2월 3일 UN군 사령관은 ‘미8군CXGC-P370.42호’에 의거 비무장지대 남북한계선에 인접한 접적

구역에서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을 목적으로 민간인의 귀농을 통제하는 귀농선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통제권과 행정권을 행사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Eom, 2002). 최근 연구를 통해 귀농선과 민간인을 통제하는 선으로써의 성격은 갖추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당시였으며, 사무엘 마이어 부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방지역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 중 “미국·유엔과 연합군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민간인의 군사작전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해 전투 기간 중에 설치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당시의 북위 38선을 대체로 귀농선이자 민간인 접근 금지선으로 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Hahn, 2020).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된 선은 전쟁 이후 유엔군 문서 및 연구 논문 등을 통해 귀농선, 영농선 등의 용어로서 불리게 되었고, 「군사시설보호법(1981.12.31.)」에 의해 ‘민간인통제선’으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54년 11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11개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된 선 이북에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81년 12월 31일 이후 법적으로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마을이 되었다. 이러한 민북마을은 입주 및 거주 유무에 의해 분류되었으며, 자립안정촌, 통일촌, 재건촌, 실향민촌 등 다양하게 입주촌에 대해 명명하고 있다(Kyonggido, 1987; Kangwondo, 1987; Eom, 2002; Lee, 2012; Jeong, 2017). 그러나 입주한 마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입주하지 못한 마을, 즉 미입주마을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입주 마을에 대해서도 시기별 마을 목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2년 GIS를 이용하여 지도상에 마을의 분포 및 그 변화를 공간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있었고(Lee, 2012), 이후 민통선의 북상에 따른 마을분포 양상이 보다 도식화한 연구가 진행되었다(Jeong, 2017).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마을의 위치만을 표시하고 변화 양상 및 현황만 서술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개별 마을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6·25전쟁 이전에 위치한 마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미입주 마을 수만 기

록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마을 현황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리학에서 보는 지역의 개념은 인간 집단의 생활영위에 의해 구체화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인 생활공간은 단지 물리적 공간에 적재된 것이 아니라 환경적 구조와 그에 대한 특성을 지닌다고 볼 때 생활단위체로서의 기초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Kim, 1976). 이러한 지리학적 측면에서의 기초지역에 대한 연구 중 접경지역 연구는 많은 부분에서 단절되거나 현황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지역 차원에서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리학 차원에서의 접경지역의 연구는 이러한 기초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지는 강원도 철원군 민북마을 일원으로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로 하였다(그림 1). 철원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겪은 지역 중 하나이고 민통선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지역이자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민북마을이 위치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민북마을의 사회공간적 분포 및 변화(Kyonggido, 1987; Kangwondo, 1987; Eom, 2002; Lee, 2012; Jeong, 2017), 민북마을 환경계획(Lee, 2012) 등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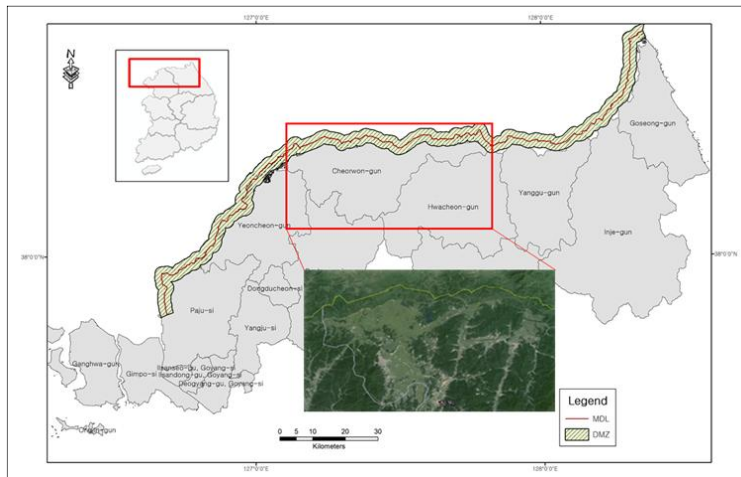


FIGURE 1. Study area

민북마을에 대한 거시적이고 현황에 초점을 둔 시·공간적 분석 보다는 민통선 변화를 중심으로 분포한 철원 지역의 마을(민통선 설정 이전부터 최근에 분포한 마을)에 대해 촌락의 형태 및 성격, 명칭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연구되지 않았던 마을들을 분석함으로써 민북지역에 대한 공간 DB를 구축하고 주민 인터뷰 및 현지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공간 DB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시·공간 분석을 통해 기존의 입주마을 뿐만 아니라 미입주마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민북마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방법

### 1. 선행연구 고찰

민통선 북방지역 및 마을에 관한 연구는 1987년 민통선 북방지역 자원조사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자원, 지질, 자연지리, 토양, 수문, 사회문화, 고고학 자원, 민속, 동식물, 식생, 산림, 곤충, 어류 등에 대해 주제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였고, 이후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대표적으로 활용되었다. 2002년 민북마을 중 대마리를 사례로 마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Eom, 2002), 2012년에는 민북마을의 분포 현황을 GIS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등 전체적인 분포 기초 현황을 제시하였다(Lee, 2012). 이후 2017년에는 시공간적 분포현황을 보다 체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민북마을의 전반적인 분포현황을 제시하였다(Jeong, 2017).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나 또는 마을 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해 온 것이 대부분이어서 보다 세부적인 민북마을 현황 및 분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철원군의 민북마을 현황을 자세히 제시하고 시기별 공간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전협정문 2권의 지도(1:50,000), 현재 위성사진(Google Earth)에서 대상 마을을 추출하고, 관련 마을에 대한 지명, 위치, 유래, 인구, 주요 시설 등의 정보를 지명유래집, 철원군지, 향토지, 철원 발간 보고서 및 책자, 과거 신문 등에서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54년 11월 이후 민북마을의 정착과 관련하여 1970년대 지도 및 현재의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입주마을과 미입주마을의 속성정보를 각각 정리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철원의 민북마을 이장, 사무장 등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통제선상의 통제지점(초소), 인근 미입주 마을에 대한 정보(위치 등)를 확인하였다.

정전협정문 제2권 지도, 국가공간정보통합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수치지적도, 행정구역도 등을 활용하여 구축된 DB 자료를 바탕으로 민통선 변화에 따른 민북마을의 분포도를 시기별, 유형별, 입주여부별로 시계열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민간인통제선 설정

민간인통제선은 「군사시설보호법(1981.12.31)」 개정시 법률에서 명시한 법률용어로서 법 개정 및 국방부고시를 통해 조정된 군 통제선이다. 6·25전쟁 이후 귀농선 또는 영농선과 같은 통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이나, 그 목적에 있어 설정 차이가 있다. 민간인통제선은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선으로서 1978년 처음으로 보호구역 설정하는데, 당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1972.12.26.)」의 제5조 출입 등의 제한 조항에 의해 보호구역 내에 출입 등은 제한되어 보호구역의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민간인통제선에 대해 처음으로 기술한 「군사시설보호법(1981.12.31.)」 제7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제1항에 의거한 통제보호구역 출입시 해당 구역

TABLE 1. Range of the CCL

Category	Range(CCL)
PROTECTION OF MILITARY INSTALLATIONS ACT(1972.12.26.)	-
PROTECTION OF MILITARY INSTALLATIONS ACT(1981.12.31.)	within 5~20 kilometers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PROTECTION OF MILITARY INSTALLATIONS ACT(1993.12.27.)	within 10~25 kilometers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PROTECTION OF MILITARY INSTALLATIONS ACT(1997.1.13.)	within 15 kilometers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2007.12.21.)	within 10 kilometers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2019.10.24.)	within 10 kilometers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군사시설보호법(1972.12.26.)」의 보호구역이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일치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Jeong, 2017). 2007년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일부개정 및 제정을 통해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변경 및 축소하게 된다. 현재 그 범위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2019.10.24.)」 제5조 2항에서 ‘군사분계선의 이남 10km 범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 1항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을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기별 민통선에 대한 법률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표 1).

## 2. 철원 민북마을 분석

민통선은 1954년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의 이양으로 당시 영농행위의 확대 및 통제를 위해 귀농선 또는 영농선으로 정의되었던 일종의 통제 선이었다. 당시 이 선은 통제선 이남의 주민들의 영농 생활을 확대하여 농작물 생산을 보다 늘릴 수 있도록 완화하는 기능을 가졌었다. 이후 영농선 이북지역에는 다수의 마을이 형성되

게 된다. 1954년 11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의 11개리가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함으로써 민북마을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민북마을은 입주 시기 및 형성 원인, 거주 유무에 따라 입주마을과 미입주마을로 구분된다. 입주마을은 마을 형성 원인에 따라 자립안정촌과 전략촌으로 크게 나뉘는데 자립안정촌은 전쟁 이전 주민들이 정전협정 이후 다시 고향에 와서 정착한 비교적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로서 군사 작전 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출입통제 절차를 거쳐 거주하게 된 마을이다. 전략촌은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된 마을로서 재건촌과 통일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 분포를 지역별로 확인해보면, 전체 입주한 민북마을 중 강원도에는 자립안정촌 20곳, 재건촌 9곳, 통일촌 1곳 등 총 30곳의 마을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미입주마을은 40곳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경기도의 민북마을은 총 58곳으로 대부분인 자립안정촌(52곳)이며 재건촌 5곳, 통일촌 1곳이 있었다. 인천의 경우 강화군에만 35곳의 자립안정촌이 위치하였다. 경기도 미입주마을은 51개소이며 인천에는 미입주마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철원군의 민북마을은 1959년 4월 10일 72세대가 월하리에 입주한 이후 총 13개의 민북마을이 생겨나게 되었다. 1960년대는 자립안정촌인 도창리, 관전리, 마현1리, 재건촌인 대마리(1980년대 1리와 2리로 분구), 마현2리가

입주하게 되고, 1970년대에는 자립안정촌인 사곡2리, 동막리, 재건촌인 생창리, 정연리, 양지리, 이길리(정연리 분구), 통일촌인 유곡리가 입주하게 되었다(표 3). 철원군 통계연보상 민북마을이었던 도창리는 1976년 해제된 것으로 민통선의 북상보다는 주민거주와 관련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이나 법상으로는 1989년 해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80년대에는 민통선 북상으로 인하여 사곡2리가 민북마을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민통선의 지속적인 북상에 의해 민북마을에서 해제되는 마을만 있게 된다. 1990년대에는 동막리, 관전리, 월하리가 민북마을에서 해제되었고, 2000년대에는 대마1리와 대마2리, 2010년대에는 양지리가 각각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되면서 일반마을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규제완화 및 민통선 북상에 따라 현재 6개의 마을만 민북마을로써 존재하고 있다. 이 중 생창리는 유일하게 법상 군사통제 구역에 해당되나 출입통제는 완화되어 자유롭게 마을을 오갈 수 있다.

민북마을에서 현재 민통선 이남의 마을 주민(양지리·대마리·유곡리)와의 면담을 통해 민통선 북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초기 주민 입주에서부터 정착까지 많은 고생을 하며 지내오다가 정착 초기 정부에서 나누어준 토지 관련하여 토지 원소유자가 출현하면서 법적 분

쟁 문제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북마을 정착하고 나서 갖은 고생은 다했는데 남은 건 토지소유 문제고 그동안 벌은 건 다 자식 농사하는데 쓰고...”

“민통선이 올라가서 그동안 많은 통제받은 것들이 없어지나 했더니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고 백마고지역에 기차 개통이후에는 산나물 들나물 캔다고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이 해집고 다니고... 좋은 점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많아 그래도 마을에서 펜션이다 식당이다 특산물이다 다 하고 있어서 그럴수록 마을 소득이 오르는 것 같긴 한데 나같은 농사꾼이야 뭐...”

또한 민통선의 북상에 따른 민북마을 해제가 마을주민들에게 지금에 와서는 크게 좋아진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다. 입주초기부터 90년대까지는 군부대에서 통제가 많았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개발 이외에 출입과 영농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오히려 양지리 마을 같은 경우 2012년 민북마을에서 해제된 이후 초기에 마을을 찾는 관광객 수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두루미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나마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 구제역 및 AI와 같은 가축질병과

TABLE 2. Minbuk villages in the Cheorwon-gun

Category	Inhabited village			Total	Uninhabited village
	Independently stabilized town	Tactical town			
		Re-built town	United town		
Total	6	7	1	14	24
Cheorwon-eup	Wolha-ri, Gwanjeon-ri	Daema-1ri, Daema-2ri			Jung-ri, Sayo-ri, Oechon-ri, Naepo-ri, Sanmyeong-ri, Jungse-ri, Yujeong-ri, Hong-won-ri, Dokgeom-ri, Gadan-ri
Gimhwa-eup	Dochang-ri	Saengchang-ri			Eumnae-ri, Unjang-ri, Amjeong-ri, Yongyang-ri, Gambong-ri
Galmal-eup	Dongmak-ri	Jeongyeon-ri			
Dongsong-eup	-	Yangji-ri, lgil-ri			Junggang-ri, Gangsan-ri, Hagal-ri, Gwanu-ri
Geunnam-myeon	Sagok-2ri, Mahyeon-1ri	Mahyeon-2ri			Pung-am-ri, Yangji-ri
Geunbuk-myeon	-		Yugok-ri		Baekdeok-ri, Geumgok-ri, Yulmok-ri

TABLE 3. Entry and release of Minbuk village in the Cheorwon-gun

Administrative division	Village	Type	Year of entry	Year of Release
Cheorwon-eup	Daema-1,2ri	Re-built town	1968	2000
Cheorwon-eup	Wolha-ri	Independently stabilized town	1959	1992
Cheorwon-eup	Gwanjeon-ri	Independently stabilized town	1960	1992
Gimhwa-eup	Saengchang-ri	Re-built town	1970	-
Gimhwa-eup	Dochang-ri	Independently stabilized town	1960	1976
Geunbuk-myeon	Yugok-ri	United town	1973	-
Dongsong-eup	Yangji-ri	Re-built town	1973	2012
Galmal-eup	Jeongyeon-ri	Re-built town	1971	-
Dongsong-eup	Igil-ri	Re-built town	1974	-
Galmal-eup	Dongmak-ri	Independently stabilized town	1974	1992
Geunnam-myeon	Mahyeon-1ri	Independently stabilized town	1960	-
Geunnam-myeon	Mahyeon-2ri	Re-built town	1968	-
Geunnam-myeon	Sagok-2ri	Independently stabilized town	1971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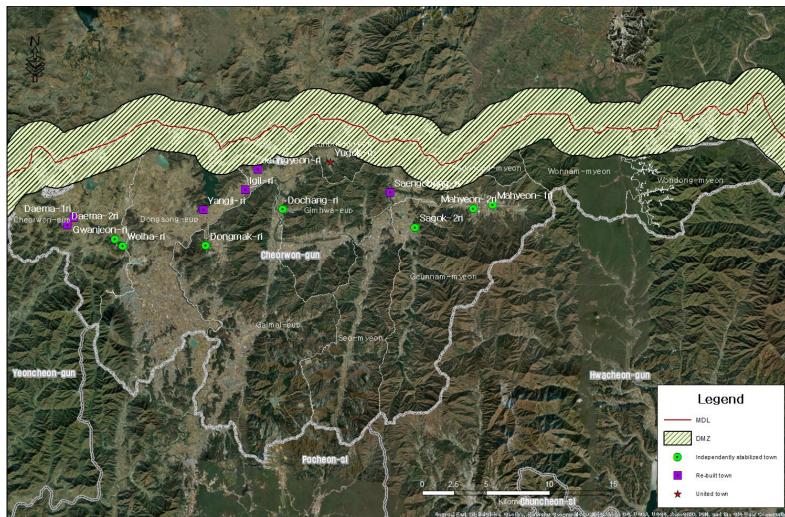


FIGURE 2. Distribution of Minbuk villages in the Cheorwon-gun

메르스, 코로나19 등 인간에게 미치는 전염성 질병, 남북관계 등에 영향으로 사정은 많이 좋지 않다고 한다.

한편, 현재까지 철원군 내 미입주한 마을은 총 24개 마을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지역에 분포하였으며, 현재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마을이다. 철원읍 10개 리, 김화읍 5개 리, 동송읍 4개 리, 근남면 2개 리, 근북면 3개 리에 위치한 마을들이 있으며 기존 자료들(Kangwondo, 1987; Eom, 2002; Lee, 2012; Jeong, 2017)

과 달리 현 지적도상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만을 분석한 결과이다(표 2).

### 3. 민간인통제선 조정에 따른 민북마을 변화 분석

민간인통제선 조정에 따른 민북마을 변화 분석을 위해 1976년 통계연보(1975년 기준), 국방부고시 제1994-2호, 국방부고시 제2008-41호, 철원군고시 제2012-54호, 철원군고시 제2012-66호,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철원군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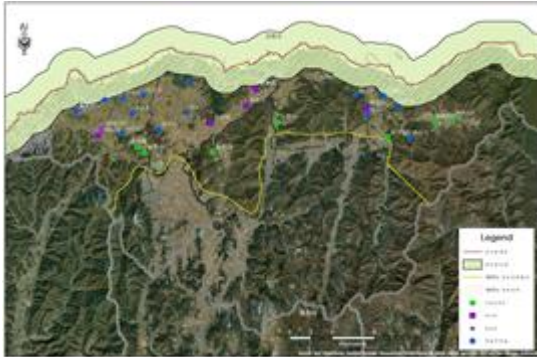


FIGURE 3. Establishmen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distribution of Minbuk villages in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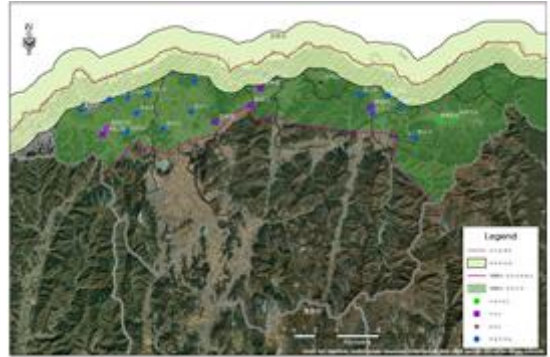


FIGURE 4. Establishmen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distribution of Minbuk villages in 1995

적도 파일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민북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 제2권 지도, 기존 논문, 민통선북방지역자연조사보고서, 대한민국정보 관보(2012~2015)를 활용하여 마을의 공간적 위치를 추출하였다. 민간인통제선 조정 관련 시계열 범위는 「군사시설보호법(1972.12.26.)」이 제정된 이후이며, 통계연보상 그 범위를 사람이 직접 그린 민간인통제선 위치도가 아닌 컴퓨터를 활용하여 표현한 1976년 통계연보(1975년 기준)를 기준으로 2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1975년 민간인통제선 자료는 통계연보 상 민간인통제선 자료를 벡터라이징하여 그 범위를 추출하였으며, 이 시기의 민북마을은 14개의 마을 중 분구된 이길리와 관전리를 제외한 13개

마을이 정착하고 있었다(그림 3). 20년이 지난 1995년에는 14개 마을 중 5개 마을이 민북마을에서 해제되어 9개 마을만이 남게 된다. 이때 북상한 민통선은 동막리 시가지 이북까지 북상하였다(그림 4). 많이 북상한 지역은 직선거리로 약 6.1km 북상하였다. 전반적으로 북상된 지역은 관전리, 월하리, 동막리, 도창리 일원이 범위 내 포함된다. 감소한 지역의 면적은 약 73.3 km<sup>2</sup>이며, 해제된 민북마을은 관전리, 월하리, 동막리, 도창리, 사곡2리 등 5개 마을이다(그림 5).

1995년 자료는 기존 자료에서 국방부고시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추출하였다. 2015년 또한 국방부고시와 철원군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북상한 선을 지적도에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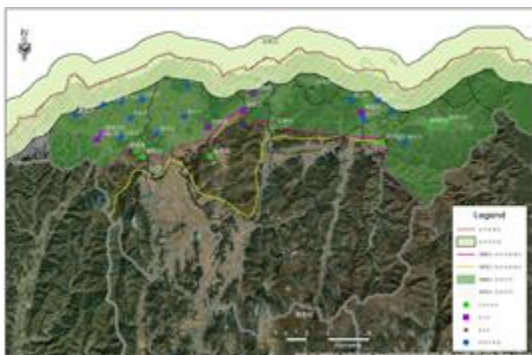


FIGURE 5.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the Minbuk regions and villages from 1975 to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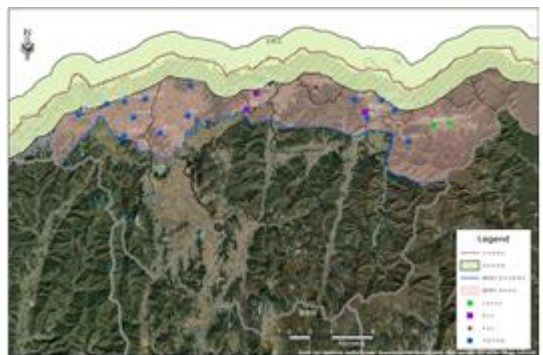


FIGURE 6. Establishmen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distribution of Minbuk villages i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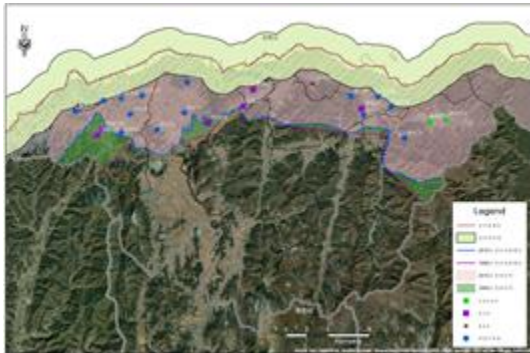


FIGURE 7.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the Minbuk regions and villages from 1995 to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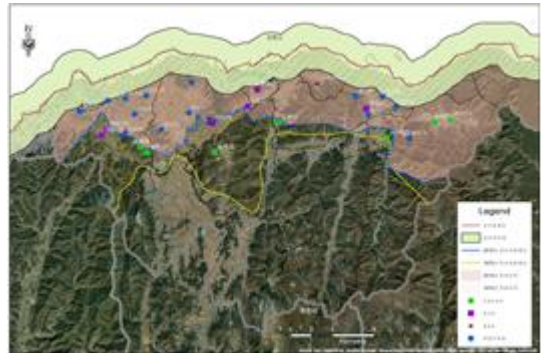


FIGURE 8.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the Minbuk regions and villages from 1975 to 2015

출하여 분석하였다(그림 6). 2015년에는 9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민북마을에서 해제되었다. 해제된 지역은 크게 2지역으로 볼 수 있다. 대마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양지리와 동막리 및 도창리 북부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북상한 지역은 대마리이며 직선거리 약 6km 이 북으로 북상하였다. 북상된 지역 내에는 대마리 1리와 2리, 양지리가 이에 속한다. 이 기간 동안 감소한 지역의 면적은 32.5km<sup>2</sup>이며, 1975년~1995년 감소한 면적보다 약 40.8km<sup>2</sup> 적었다(그림 7).

40년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민북마을은 14개 중 6개만 남게 된다. 이 중 생창리 마을은 법상

으로는 민통선 이북지역에 속하나 출입통제가 없는 유일한 마을이며, 나머지 이길리, 정연리, 유곡리는 사전신청 및 관계자 확인 등 출입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마현1리와 2리는 철원-화천으로 이르는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사전신청 등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1975년부터 2015년까지 민통선의 북상으로 총면적 중 105.8km<sup>2</sup>가 감소하였고, 민북마을 총 14개 중 6개의 마을, 자립안정촌 2개, 통일촌 1개, 재건촌 3개만 남게 되었다(그림 8).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부터 남한에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인 남방한계선 이남 지역의 범위 내에서 미입주 마을을 확인한 결과 통계상의 마을



FIGURE 9. Location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military posts in Yangji-ri before 2012



FIGURE 10. Change in the location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military posts in Yangji-ri since 2012

보다 10개 적은 14개 마을로 추출되었으며, 나머지 10개 마을 중 9개 마을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개 마을은 철원읍의 중세리, 산명리, 내포리, 유정리, 사요리, 외촌리 등 6개 리, 김화읍의 암정리, 읍내리, 용양리, 운장리 등 4개 리, 동송읍의 관우리, 하갈리, 강산리 등 3개 리, 근남면의 풍암리의 1개 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개 마을은 관전리와 월하리와 경계로 있는 마을로 464번 지방도를 중심으로 가옥이 분포하나 관전리와 월하리의 생활권에 속해 있다.

최근 민통선의 변화에 따라 민간인을 통제하는 초소 위치의 변화 및 이에 따라 민북마을이 해제된 양지리의 경우 마을출입이 자유롭게 바뀌고 마을 특성에 맞는 시설 도입이 되는 등 개발 및 보전이 함께 이루어졌다. 비록 해제 직후 민통선 해제에 따른 희소성 차원에서의 민통선 해제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지만 철새 탐조의 최적지로서 특성을 지닌 마을인 만큼 DMZ철새평화타운(2016년)이 개소되어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양지리의 경우 민통선의 초소는 북쪽 직선거리로 약 2.2km 북상하였고 마을은 민북마을에서 2012년 해제되었다(그림 9, 10).

## 요약 및 결론

민간인통제선은 법률에 의해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통제선이다. 이러한 통제선은 이 지역에 독특한 특성을 가진 마을인 민북마을을 조성하였다. 철원군 내에서도 많은 기간 동안 민간인통제선의 북상으로 약 60%의 마을이 민북마을에서 해제되어 일반적인 농촌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으나, 6개의 민북마을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민북마을은 6·25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생긴 마을로서 지리, 역사, 문화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매우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1975년부터 2015년까지 민통선의 북상으로 철원군의 민북지역 총면적 중 105.8km<sup>2</sup>가 감소하였고, 현재 자립안정촌 2개 마을(마현리 1리,

2리), 통일촌 1개 마을(유곡리), 재건촌 3개 마을(생창리, 이길리, 정연리)이 민북마을로 유지되고 있다. 이 중 3개 마을인 유곡리, 정연리, 이길리는 출입통제가 마을주민을 제외하고는 자유롭지 않으나, 과거 정착초기와는 달리 엄격하지는 않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는 출입이 다소 자유로우나 민통선 내부에서의 활동은 제한되어 있다. 이와 달리 민통선 이북에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마을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면 24개이지만 비무장지대에서의 거주가 불가능한 점을 비취어 볼 때 접근 가능한 미입주마을은 10개 중 9개 마을로 분석되었다. 1개 마을은 일부지역에 입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통선의 북상은 민북마을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양지리 마을을 통해 해제이후 민북마을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한번 경험하였기 때문에 마을 발전과 지역발전 차원,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민북지역과 민북마을의 기초가 되는 공간적 분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차후 이 지역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후속 분석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KAGIS**

## REFERENCES

- Eom, D.Y. 2002. The social and spatial changes caused by the relaxation of restrictions in a min-buk village : In case of daema-ri, cherylwon-gun.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sity. pp.13-32 (엄대용. 2002. 민북마을의 통제 완화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3-32).
- Hahn, Monica. 2020. Changes in civilian control lines and formation of 'minbuk village', 1950s-1960s. 24:59-92 (한모니카. 2020. 1950년대~1960년대 민간인통제

- 선(CCL)의 변화와 '민북(民北)마을'의 형성. 북한연구학회보 24:59-92).
- Jeong H.Y. 2017. A study on the temporal-spatial variation analysis and development alternative for the DMZ and its border region in the Korean peninsula. Ph.D.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p.42-44 (정해용. 2017. 한반도 DMZ 접경지역의 시·공간적 변화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2-44).
- Ju, H.S. 1989. A geographical study of the region contiguous to Korean armistice line. Master Thesis. Sangmyung Womans University. pp.11-12 (주현순. 1989. 한국휴전선 인접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1-12).
- Kangwondo. 1987. Report on the environmental study of near DMZ, Korea - kangwondo area. pp.78-83 (강원도, 1987, 민통선북방 지역자원조사 보고서. pp.78-83).
- Kim, C.H. 2007. A study on the spatial range of DMZ.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3(4):454-460 (김창환. 2007. DMZ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454-460).
- Kim, C.H. 2009. The survey of disappeared villages in the demilitarized zon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2(1):96-105 (김창환. 2009. DMZ 내 사라진 마을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1):96-105).
- Kim. I.K. 1965. Farming problems in the north of no-farm line.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18:253-272. (김인경. 1965. 귀농선북방의 영농문제 고찰. 국방연구 18:253-272).
- Kim. S.H. 1976. A study on living space and basic areas.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1(2):1-25. (김상호. 1976. 생활공간과 기초지역 연구: 면·리·동의 지역적 기반. 국토지리학회지 1(2):1-25).
- Ko. K.D. 1967. A study of farming problems in the north of the "no farming line".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23:189-223. (고광도. 1967. 귀농선 북방 영농에 관한 연구 - 농업생산 및 군작전에 대한 새로운 기여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23:189-223).
- Kyonggido. 1987. Report on the environmental study of near DMZ, Korea - kyonggido area. pp.62-67 (경기도, 1987, 민통선북방 지역자원조사 보고서. pp.62-67).
- Lee. S.Y. 2012. Minbuk village environment plan : The case of yangji-ri village. Master Thesis. University of Seoul. pp.15-25 (이승연. 201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민북마을 환경계획 :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25).
- Lee. T.H. 2012.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villages in civilian control zone by using GIS. Master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p.16-26 (이태희, 2012,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26).
- Martinez, O. J., 1994, Border people: Life and society in the U.S.-Mexico borderlands.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 Parker, B.J., 2006, Toward an understanding of borderland processes, American antiquity, 71(1), 77-100. [KAGIS](#)